캄보디아 농림수산물 속보

가짜 비료로 농산물 소득저하(10/23)

정부의 농업관련 고위층은 가짜 비료의 만연되고 있는 유통을 우려하고 있다. 이들 가짜 제품이 쌀의 생산을 억제하고 농민의 소득을 줄이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농림수산부의 수도작과 닌짜이 과장은 프놈펜에서 22 일 열린 연구개발 포럼에서 이들 제품이 표준에 밑돌아 쌀의 성장을 느리게 할 뿐만 아니라 작물을 죽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닌짜이 과장은 "우리가 직면한 과제는 일부의 기업이나 보급처가 표준을 맞추지 못하는 비료를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는 정부에서 공문으로 이를 경고하였었다."고 말한다.
과장은 현재 캄보디아로 수입되고 있는 표준 미달의 비료가 얼마나 유통되고 있는지 알수 없다고 하는데 이는 수입비료의 통계를 맞고 있는 부서가 다른 과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도정 쌀을 세계 시장에 수출하고 태국 NPK 사의 비료를 연간 6 만~7 만 톤 수입하고 있는 로란그룹의 사장인 림분헹씨는 가짜 화학비료는 화학성분의 양이 달라 실제 생산량을 줄이며 구매시 가격이 저렴하다고 말한다.
비정부기관인 캄보디아 농업연구개발센터(CEDAC)의 양싸잉코마 센터장은 가짜 비료는 농산물의 생산량을 줄일 뿐 만 아니라 토양의 품질을 저하시킨다고 한다. 그는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농부들이 유기질 비료의 사용을 늘리고 믿을 수 있는 화학비료를 구매하는 것이라고 한다.

수산물 줄어(10/24)

[사진 : 어부가 씨엠립의 똔레삽에서 그물을 이용하여 고기를 잡고 있다.]

올해는 강과 수로의 물 부족으로 수산 자원이 줄어든 것으로 수산관련 공무원이 밝혔다. 농림수산부 농림국 부국장인 삼노브씨는 똔레삽 강의 수위가 줄어들었으며 이로 인해 강을 따라 움직이는 물고기들의 자원도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메콩강으로부터 똔레삽으로 이동하여 들어오는 작은 물고기들의 이동을 관찰한 결과에 의하면 작은 물고기들의 이동수는 변화가 없지만 줄어든 물로 인해 물고기의 성장이 느려진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캄보디아의 지역 연합체와 국제적인 비정부기관으로 구성된 똔레삽 호수의 수산자원 협력팀의 민분리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도 홍수의 부족으로 수산물의 양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깜퐁톰 수산협회 회원인 쩽킴롱씨는 성어가 작아진 것에 동의하면서 평균적으로 0.3~0.5 킬로그램 정도라고 말한다. 지난해에는 이들 물고기가 평균적으로 0.8~1.0 킬로그램 정도였다고 한다.

쇠고기 값 2 배로 뛰어(10/30)

[사진 : 소고기 가격이 지난해 이 기간보다 2 배 가량이 오른 가운데 농부가 소떼를 몰고 있다.]

이슬람의 희생제 축제가 29 일 마무리된 가운데 소고기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고기 가격이 지난해 이맘때보다 가격이 2 배나 올랐다고 이슬람 지도자와 관리들이 전했다. 축제 가간 중 무슬림들은 자신들이 사랑하는 짐승을 희생하는데 2 년 이상된 소의 수요가 높아 가격이 오른 것이다. 지난해 200 달러이던 소 가격이 올해는 400 달러로 올랐다고 한다. 그러나 이 가격에도 소를 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많은 소가 축제 기간중 베트남으로 수출되어 수요 부족이 부른 결과이다.
이슬람 단체는 해외의 지원으로 255 마리의 소를 잡아 가난한 무슬림들에게 고기를 제공하였다고 한다. 이들 짬족은 캄보디아 내 대략 60 만 명으로 추정된다.
축제는 3 일간 지속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 무슬림들은 평균 300 그램의 소고기를 소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놈펜 포스트 영문 신문 기사)